

사설

학생이 참여해 제도 개선 효과 높여야

학교본부가 새로운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관련 학내부서에서 TF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도 취합했다고 한다. 계획대로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수강신청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20년 만의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학교당국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파악해 제도 변화를 꾀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의 수강신청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학생 대부분이 동의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학과와 강의의 특성 및 환경, 교수의 교육철학, 학생이 가진 학업열정에 따라 원하는 수강신청의 형태에 차이가 있고, 목적하는 바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인이 희망하는 대로 학생이 원하는 수업 대부분이 개설되고, 교수가 원하는 모든 강의를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희망에 가깝다. 그러니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육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금번에 학교당국에서 수강신청제도의 변화를 위한 실제적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수강신청제도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도 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현재의 수강신청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이나 불합리, 그리고 수강신청제도의 적절한 개선방향에 대해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밝혀줘야 한다.

학교행정에 있어서 문제와 불만이 있을 때 문제제기는 그때그때 크게 일더라도, 막상 개선을 위해 여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파악하고자 나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이렇게 불충분한 여론 파악을 기반으로 개선안을 찾다보면, 애초의 의도에 못 미치게 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좀 더 만족스러운 제도를 강구할 수 있다. 학생들의 관심으로 수강신청제도가 본교의 학업생활의 내실을 다지고 본교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변화 하길 기대한다.

석탑추추

포용성으로 한 발 더

이따금 학교 곳곳에서 외국인 학생을 겨냥한 낯선 말이 들린다. 집단을 분명히 저격할 그 말들은 일순에 날아가 오차 없이 표적에 꽂힌다. 팀 프로젝트 때 불성실했던 외국인 학생 얘기 등 말들엔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어느 집단에나 있다. 다양성은 늘어나는데 포용성이 부족하다.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의 2007년 논문을 보자. 공동체에 인종 다양성이 늘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나, 단기적으로는 신뢰, 이타심, 협력 등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친구 관계도 준다. 퍼트넘 교수의 논문을 두고 미국의 시민사회운동가 파커 파머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다양성에 직면할 때 긴장해 낯선 자를 주변화한다.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대로면 다양성은 공동체를 마비시킨다.' 그래서 그는 포용성을 강조한다. '차이를 끌어안을 때, 다양성은 유익하다.' 퍼트넘 교수도 논문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연대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다양성에 익숙해지는 일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집단적인 노력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엔 노력한 만큼 다양성이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최근 혁신위원회가 윤리헌장을 내놨다. 학생 윤리강령 제4조는 '학생은 타인의 인격과 권리,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초 출범한 다양성위원회는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관련 규정 제1조에서 설립 취지를 밝혔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 모두 포용성이다.

이미 많이 언급된 다양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포용성을 강조하게 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많은 학생이 윤리헌장과 다양성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널리 알리면 고려대에 시작된 좋은 변화가 뜻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기대를 걸고 말한다.

김태훈 취재부장 fox trot@

석탑만평

조은결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부장	김태훈	FAX	02-928-0879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시사부장	전남혁	메일 press@kunews.ac.kr
		문화부장	박진웅	핸드폰 010-3363-1947
발행인	정진택	편집국	02-3290-1683	페이스북 /kunews1947
편집인 겸 주간	김재환		02-923-4408	플러스친구 @고대신문
인쇄	중앙일보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주소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08
편집국장	송재현	총무국	02-3290-1682	청산MK문화관 6층

파리기후변화 협약과 청년 세대

시론

박세훈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한국대표



한 삶의 터전의 상실이 예고된 상황이 다. 2050년경이면 10억 명 이상의 기후난민이 발생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만 약 5억 명 정도가 살던 땅을 떠나야 한다. 가장 큰 피해 국가는 중국이지만 한반도도 약 200만 명이상의 기후난민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은 가뭄이다. 한반도 위쪽 중국의 지린성, 랴오닝성 북서쪽까지 뻗어오는 내몽골, 외몽골 사막의 빠른 동진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이 2005년부터 전후하여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전락한다면 믿겠는가? 그래서 물산업이 2030년 전에 대한민국 5대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 잡는다는 예측이 있지만 적용 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후 2015년에 채택된 파리신기후체제는 세계 197개국이 참여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협의회 패러다임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대응 재원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국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배출권 거래 등 국외 감축분은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목표설정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인류의 건강과 안전

사업은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4차산업혁의 핵심분야가 융접목되어 뉴스마트팜으로 기술설계가 들어가 진일보해야 한다.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위해 관련 기술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 관련 당국은 뉴스마트팜 스타트업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수익유동망을 확보해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해줘야 한다.

뉴스마트팜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미세조류(microalgae)사업이다. CO2를 먹고 자라니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조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으며,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전체를 저감하는데 중요한 생명자원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조류기름(algae oil)을 발전소, 제철소, 차량, 항공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중에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인공조류가로수를 배기가스와 조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활용중이다. 어느새 미세먼지국가의 이미지를 떠안게 된 대한민국은 미세조류사업을 활용해 청정국가 이미지를 다시 찾아야만 한다.

'큰일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심각성 인식교육,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국제사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급 학교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혁명과 기후환경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권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물론이고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청정한 지구촌을 보전할 수가 있다.

중단횡단

서울이든 평양이든 축구는 축구다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 원정을 떠난다. 1990년 평양 능라도5월1일 경기장에서 열렸던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이다. 오는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맞붙을 한국과 북한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에 속해있다. 예선 경기 중 한 경기이기는 하지만 평양 원정이라는 특수성 아래 국민의 관심은 높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기에 관한 직접적인 소통이 없다. 북한은 예선을 주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서야 예전대로 평양에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AFC에 밝혔다. 소통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피

해는 고스란히 국가대표팀의 몫이다. 통상적으로 대한축구협회는 원정 A매치를 위해 본 경기를 2~3주 앞두고 경기장, 훈련장 점검 및 숙소 선정을 위한 현장 답사에 나선다. 하지만 현장 답사는 커녕 방북 경로, 훈련장, 숙소 등의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17년 여자 아시안컵 예선 평양 원정 경험의 기억을 더듬으며 준비 중인 축구협회는 괴로울 성싶다.

더불어 응원단 파견도 불확실하다. 국가대표팀 A매치 원정 경기의 경우 원정팀에 적어도 1200여 명의 응원단을 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는 응원단 파견을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북한의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

니라 생방송을 담당할 국내 방송사들의 파견 인원도 제한됐다. 원래 20명의 중계방송단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북한은 10명만 허용했고 취재기자단도 총 18명으로 결정됐다.

한국과 북한이 평양에서 경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제3국에서 경기가 이뤄졌던 10년 전의 월드컵 최종예선을 비교하면 그나마 나아진 편이다. 하지만 그들의 묵묵부답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 양측이 협력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원활한 소통은 필수다. 장소가 서울이든 평양이든 홈팀은 원정팀을 맞이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축구는 축구이기 때문이다.

김군찬 기자 alfa@

중단횡단

길은 하나뿐인가

'대2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다. 당시에는 대2병마저 부러웠지만, 2학년이 되니 그 단어의 무게를 알 것 같다. 어디를 가도 진로 얘기가 끊이지 않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다. 다들 성공을 원하고 서로 더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방향과 속도는 비슷한 듯하다.

수많은 사람 속 앞서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구글 김태원 상무의 특강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김태원 상무는 부산으로 강의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강의가 끝난 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줄을 서서 사인을 받으며 금급했던 점들을 일대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시간으로 인해 질문한 학생들에게 모두 답

해줄 수는 없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기차역에 들어선 김태원 상무는 역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두 학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의를 들은 뒤, 김태원 상무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원했던 두 학생은 강의 중에 언급된 기차 시간을 기억하고 역에서 먼저 기다렸던 것이다. 그 덕에 두 학생은 김태원 상무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자소서 써야 한다." 모두가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합격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한 선배는 차별화를 위해 면접에 폼보드를 제작하여 가져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 생각해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은 강한 편이지만, 항상 남들과 같은 길만을 고집해왔다. 위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가능한 앞에 줄을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것일까. 누구나 자기가 더 잘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비슷한 방향이라도 실행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방식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다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박소윤 기자 eight@